

5·18 44년만에 국가진상보고서... 총상 사망자 135명

광주일보 사진 토대 집단발포 전 기관총 실탄장전·대검장착 등 규명 발표명령·암매장 등 핵심의혹 규명 한계... 민간차원 연구 지속 과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44년만에 국가공인 5·18 진상보고서가 나왔다. <관련 기사 6면> 5·18에 대한 국가 진상보고서는 5·18 민주화운동 이후 처음이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송선태, 진상조사위)는 24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를 대통령실과 국회에 전자문서 형식으로 보고했다. 이어 서울시 중구 진상조사위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종합보고서 발간 보고회를 열었다.

종합보고서에는 5·18 진상규명법에 따라 지난 2019년 12월 26일 진상조사위가 출범한 이후 2023년 12월 26일까지 4년 동안 조사 내용이 담겼으며, 대정부 권고사항을 포함한 총 1250쪽 분량으로 제작됐다. 종합보고서는 해당 법률에 발간이 규정된 국가 공인 문서다.

조사 내용에는 광주일보가 제공한 5·18 사진자료를 토대로 새롭게 밝혀낸 사실도 포함됐다.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이 대검을 장착하고 시민을 진압하거나 1980년 5월 21일 집단발포 이전부터 기관총에 실탄을 장전한 사실 등이다. 5·18 기간 사망자 166명 가운데 총상 사망자를 135명으로 규정했고, 시민군의 사격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된 26명(같은 총상) 중 25명이 계엄군의 총탄(M16)에 희생됐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성과도 있었다.

진상조사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2일 정호용 등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 14명을 내란목적살인, 집단살인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 시민군 진압과정에서 계엄군이 기준에 밝혀지지 않았던 희생자 7명을 살해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종합보고서에는 11가지 국가에 대한 권고안을 담았다. 권고안에는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계엄법 발동 요건 강화', '항구적인 암매장 조사 기구 설립', '5·18 왜곡과 편향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 강화', '5·18민주유공자의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폐지' 등 내용이 담겼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권고안을 전달받은 정부 부처는 6개월 이내에 권고안 이행 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진상조사위가 4년여 활동기간에도 핵심 의혹을



2022년 6월 23일 광주일보 1면.

밝혀내지 못한 점은 뚜렷한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법적으로 규정된 직권조사 과제 17건 중 11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결정했으나 발표명령자, 암매장·행불자 등 6건은 조사 미진으로 '진상규명 불능' 결정했다.

진상조사위는 최종 보고서 작성에 앞서 미리 공개한 초안이 되레 5·18 왜곡 우려가 있다는 집중 비판을 받는 등 한계를 노출하기도 했다.

광주로서는 그 대안으로 민간차원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됐다.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독립적 연구와 유연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진상조사위는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그동안 수집·생산 자료를 국가기록원, 5·18기록관 등 5·18 유관 연구기관 등에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25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26일 공식 해단한다.

종합보고서는 진상조사위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공개된다. 10월부터 홈페이지는 폐쇄되나 국가기록원 등을 통해 종합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송선태 진상조사위원장은 보고회에서 "국민 여러분이 기대하던 진상규명 결과를 속시원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일부 미진한 점이 있어 송구하다"면서도 "종합보고서 발간을 통해 5·18 정신이 부마항쟁, 6월항쟁과 함께 헌법전문에 수록돼 세계인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24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업체 공장에서 불이나 연기와 불길기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22명 사망·8명 부상

사망자 중 20명은 외국인 노동자

경기 화성의 리튬배터리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4일 오후 8시 현재 2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2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아리셀 공장 11동 중 3동 건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22명이 숨지고 중상 2명, 경상 6명 등 8

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망자 가운데 20명은 외국인 노동자로 확인됐다. 중국국적자 18명, 라오스 국적자 1명, 미상자 1명이다. 나머지 2명은 한국인이다.

사망자의 인적 사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시신 훼손 상태가 심해 추후 DNA 검사 등이 이뤄져야 정확한 신원 파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는 모두 발화지점인 아리셀 공장 2층에서 발견됐다. 화재 당시 공장에서 근무하던 작업자는 101

명으로 사망자와 부상자 실종자를 제외한 나머지 작업자는 무사히 대피했다.

불이 난 공장 안에는 리튬 배터리가 다수 있는 탓에 진화 어려움을 겪었다. 리튬 배터리 내부에 있는 유기성 전해액은 단시간에 열이 1000도 가까이 오르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 진화작업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5시간여 만인 오후 3시 10분께 주불이 잡혔다. 화재 이후 공장에서는 엄청난 양의 연기와 폭발음이 계속됐다.

/연합뉴스

광주 '유스퀘어문화관' 역사 속으로

광주신세계 인수 복합쇼핑몰 '아트 앤 컬처파크' 준공 계획
금호·동산아트홀, 금호갤러리, CGV터미널점 등 폐관 수순

공연, 전시, 영화 등 복합문화시설을 갖춘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이 개관 15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최근 유스퀘어문화관은 오는 30일을 끝으로 문화관 운영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광주신세계가 광주 유스퀘어 부지를 인수한 뒤 복합쇼핑몰 '아

트 앤 컬처파크(가칭)'로 준공하겠다는 계획과 맞물린 결정이다.

이에 따라 클래식 공연장 '금호아트홀'은 물론, 가변형 공연장 '동산아트홀', 전시실 '금호갤러리', 'CGV광주터미널점'이 폐관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지난 2009년에 개관한 유스퀘어문화관은 그동안 지역의 대표 복합 문화공간으로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금호아트홀'은 지역 유일의 클래식 음악회 전용 홀로 자리매김해왔으며, 뮤지컬·아동극 등이 가능한 멀티공연장인 '동산아트홀' 또한 예술인들에게는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소중한 무대였다. 각각 316석, 243석을 갖추고 있으며 호남권 최초로 하우스 매니저, 어서지원 서비스를 도입해 이목을 끌었다. 또한 극장 사무자동화 소프트웨어 '극장 운영시스템(COS)'을 자체 개발해 공연장 현대화에도 앞장서 왔다.

<2면으로 계속>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친환경으로 키운 전남 농산물!

우리집 식탁으로 바로 배송?!

로켓배송을 뛰어 넘어!

수도권 향우 꾸러미 지원사업

누구에게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부터 시행중이며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전남 향우에게 그리웠던 고향의 맛을 꾸러미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향우 1천 명

지원 품목: 1인당 연 50만 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 (자부담 25만 원 포함)

증빙서류를 갖춰 고향(출생지) 시군(친환경농업과) 방문·팩스·이메일로 신청

난임부부 꾸러미 지원사업

누구에게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꾸러미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 전남도만의 혜택입니다.

지원 대상: 난임부부 3천 명

지원 품목: 1인당 연 48만 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 (자부담 9만 6천 원 포함)

거주지 시군 보건소에서 시술비 신청 시 방문·팩스·이메일로 개별 신청